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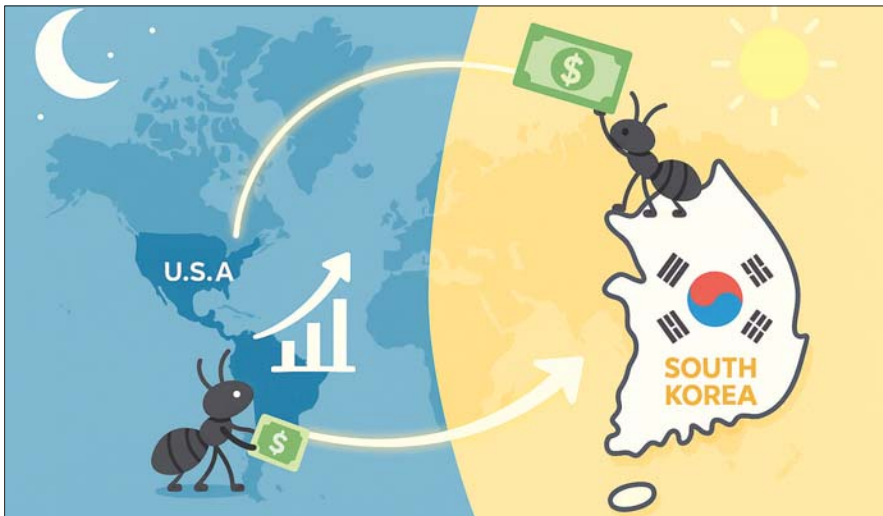
이젠 낮에도 美 주식거래… 시스템 신뢰회복·안정성 ‘핵심’

1년 3개월 만에 주간거래 재개장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거래 가능
증권사, ‘0원 수수료’ 등 경쟁 불붙어

“이젠 미국 주식을 낮에도 거래할 수 있으니, 한결 여유롭고 덜 답답하지 않을까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거래 루틴이 바뀐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사태로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8개 주요 증권사는 4일부터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서머타임 미적용 기준) 미국 주식 거래를 추가로 할 수 있게됐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복귀가 아니다. 지난해 블루오션(Blue Ocean) 대체거래소(ATS)의 시스템 장애로 9만여 계좌, 6300억원 규모의 주문이 일괄 취소된 이후, 금융당국은 복수 회선 연결과 보상 체계를 의무화하며 구조를 전면 개편한 후 이뤄진 서비스다. 각 증권사는 블루오션 외에 문(Moon), 브루스(Bruce) 등 복수 ATS와 계약을 맺어 주문을 분산 처리하고, 거래 오류 발생 시 잔고



ChatGPT에 생성된 ‘데이마켓 거래 재개로 미국 주식을 낮에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서학개미들)’ 이미지.

를 사고 전 시점으로 복원하는 ‘블랙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복수 거래망 구축과 보상 기준 마련을 점검한 뒤 재개를 승인했다”며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번 재개 전 증권사별 실거래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문 처리 속도, 복구 체계, 거래 오류 대응 절차를 일제 점검했다.

이번 데이마켓 재개로 국내 투자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국 주

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프리마켓(18시~23시30분), 정규장(23시30분~익일 6시), 애프터마켓(6시~9시50분)까지 더해지면 하루 23시간 50분 동안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주간거래 시간에는 지정가와 시장가 주문이 모두 가능하며, 미체결 주문은 애프터마켓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다.

이번 거래 재개의 핵심은 ‘신뢰 회복’이다. 지난해 사태는 국내 증권사와 미국 대체거래소(ATS) 간 책임 공방이 처음으로 불거진 사건으로, 시스템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그만큼 이번 재개는 1년 넘게 이어진 제도·시스템 보완의 결과물이며, 만약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융투자 인프라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반응 역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데이마켓 서비스 재개로 시장 변동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는 “지난번 시스템 마비를 겪고 나선 불안해서 분장 때만 거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주간거래 재개 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 ATS를 통한 주문 배분, 블랙 시스템 점검, 충분한 실주문 테스트 등 준비지침을 준수하며 막바지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며 “늘어난 거래 시간에 맞춰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환경은 편리해졌지만, ATS 거래의 한계는 여전하다. ATS는 정규거래소와 달리 시장 참여자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제한적이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호가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고, 거래

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주문 대기나 체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 재개를 ‘서학개미 시즌2’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220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미국 비중은 80%를 넘는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로 자금이 일부 회귀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이에 발맞춰 증권사들은 거래 시간 확대에 맞춰 수수료 경쟁에 나섰다. 메리츠증권은 ‘0원 수수료’를 내걸었고, 브로커리지가 큰 대형사들은 체결 속도와 UI 편의성을 개선해 플랫폼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마켓 거래가 멈춘 사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실시간 환전, 자동 알림, 테마형 정보 서비스도 잇따라 도입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간거래는 단순히 거래 시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이제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장애 없는 시장’을 얼마나 구현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임원 전원 국내주식 매매 금지

내부통제강화 TFT, 윤리경영 강화
오는 6일부터 즉시 시행 예정
법적·평판 리스크 사전 차단

NH투자증권이 임원 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며 강력한 쇄신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치는 내부통제강화 TFT를 중심으로 윤리경영 내재화와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NH투자증권은 4일 전(全)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강화 TFT는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6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영진과 주요 의사결정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원 스스로 성장하는 자세를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매수 금지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이며, 해외주식과 ETF 등은 매수 가능



NH투자증권은 4일 오전 전체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임원 50여명은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등 윤리경영 내재화를 다짐했다. /NH투자증권

하되 기존 보유 주식의 매도는 허용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 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윤병운 사장은 “임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윤리경영으로의 근본적 전환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전체 임원회의에서는 경영진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자성과 책임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들은 윤리의식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를 다짐하며 바른 행동을 통한 투명한 자본시장 구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10월 30일 ‘주거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임원을 담당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내부통제강화 TFT(테스크포스팀)를 신설했다. 윤병운 사장을 TFT 장으로, 준법·감사 등 관련 임원들을 포함해 구성한 해당 조직은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임직원 전체의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1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7회 미래에셋 미팅 프로젝트(MEET-UP Project)’를 개최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네트워크 활동으로 장학생 주도성장 지원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에셋 MEET-UP Project’ 열어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연사 나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학생들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7회 미래에셋 MEET-UP Project’를 개최했다.

4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1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해외교한 장학생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MEET-UP Project’는 2023년 11월 첫 개최 이후 매해 장학생들의 주도적 성장과 교류를 위한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특강과 유익한 네트워킹 활동이 마련됐다.

특히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연사로 나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학생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 교수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사고의 기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봄학기 미국 머레이주립대학교(Murray State University)로 파견을 다녀온 신현지 장학생은 “금융공학 전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기술을 다룰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EET-UP Project는 과학·기술·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서로 다른 배경의 장학생들이 함께하며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540여 명의 장학생이 참여했다.

/허정윤 기자

금투협, 차기 협회장 후보자 공모 돌입

오는 19일까지 공모 진행

금융투자협회가 4일 서유석 현 회장의 후임을 뽑는 차기 협회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7대 협회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후추위는 서류·면접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 총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로 차기 협회장을 선임한다.

제7대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이사과 황성업 신영증권 사장 등 2명이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유상호·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

오고 있으며, 서유석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도 주목된다.

금투협회장은 회원사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투표권은 분담금 비중에 비례해 커진다. 그만큼 대형 회원사의 중의 선거 결과로 직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회장으로 국회·금융당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에 현 정부 관심이 크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허정윤 기자